

## 기업의 오프라인 특성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강인태 · 박용태(서울대)

기업의 미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의 e-Business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은 e-Business로의 진출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과는 달리, 기업의 본격적인 e-Business 진출은 많은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의 e-Business 진출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검증 없이, 단순한 유사기업 모방이나,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기업의 e-Business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기업의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오프라인 특성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품의 특성, 수익 원천, 가치사슬의 구조 등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고, 오프라인에서의 핵심 역량, 취급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업을 분류한 후, 분류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연관관계를 찾고 설명한다.

### [제3분과회의B]

####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국제화 과정 - 실리콘밸리 진출기업 사례연구 -

배종태 · 우창진 (한국과학기술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사례를 조사하여, 국제화의 동기, 전략, 시기, 당면 문제점 및 극복방안,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의 바람직한 국제화 모형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 진출기업의 법적/조직적 형태 및 본사/현지 최고경영자의 역량에 따라 국제화된 기업의 현지 적용 성과도 조망해 본다.

이론적 문헌들과 연구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여 성장하다가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였거나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8개 벤처기업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실리콘밸리 진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들을 정리하였고, 기업유형별로 극복과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20개의 관찰결과(Observations)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연구모

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국제화에 대한 초기연구이기 때문에 탐색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국제화 전략 및 과정을 모형화하고 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실리콘밸리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 진출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사례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The Determinants of R&D and Market Structure**

**Chang-Yang Lee(KAIST)**

Understanding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research & development (R&D) investment has long challenged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seminal theorem by Dorfman and Steiner, however, the theorem has not been extended or developed much further, and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mpiric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 and variables that seem to influence it. As a factor influencing R&D, some studies emphasize demand-side variables such as market size and others suggest technology-related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opportunity across industries.

This paper derives a demand-pull, technology-push theory of R&D at the firm level, showing that both consumer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jointly determine firm R&D efforts. Then, extending the firm-level R&D model to the industry level yields the determinants of industry R&D performance and suggests as one of the determinants a measure of market structure, which provides an answer to the controversial relationship between R&D intensity and concentration. The new market structure measure reflects the joint distribution of market shares and the levels of technological competence among firms, and shows that none of the conventional measures of market structure, such as concentration ratios an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is sufficient to fully reflect market structure characteristics, as far as industry R&D performance is concerned.